

2025 Vol. 29

ISSUE & FOCUS

전국연구개발지원단

Regional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NOPOLI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Contents

04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전라남도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1

02

지역과학기술 COLUMN

지역과학기술 R&D 포괄보조금 전환 :
기회와 위험, 그리고 준비

17

03

연구개발지원단 NEWS

1. 지역혁신 체계 구축
2. 지역R&D 추진 기반 강화
3. 지역특화 정책·사업기획·활용
4. 글로벌/광역협력

67

04

R&D 성공사례

글로벌 우주항공 메카를 꿈꾸는 경남,
세계를 향한다.

73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전라남도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전남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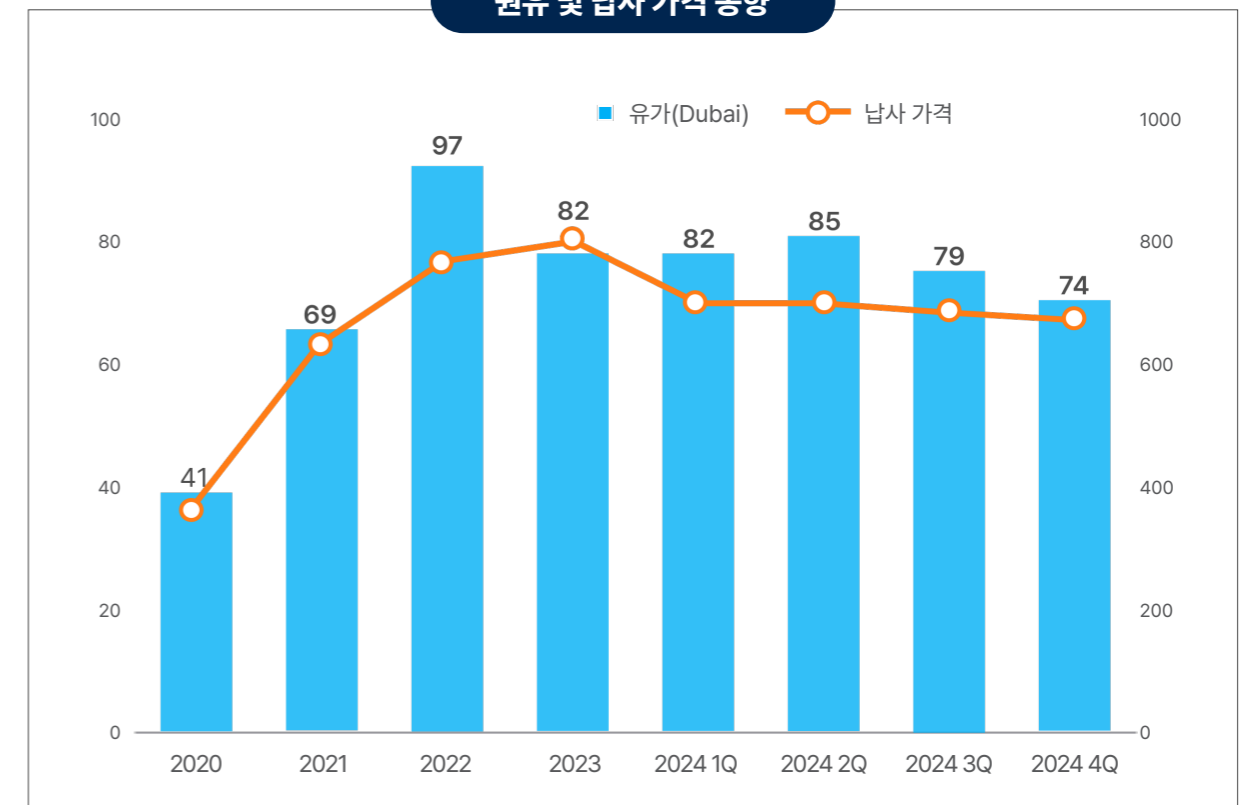
전라남도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전남연구개발지원단

1. 추진배경

- 고유가 및 고회율로 원가 부담 가중
- 국내 석유화학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 고유가 및 고회율로 인한 납사 가격 상승
 - 손익분기점 이하 에틸렌 스프레드 지속 전망
 - 2022년 222\$, 2023년 274\$, 2024년 205\$

원유 및 납사 가격 동향



- 원가부담 상승
- 고유가에 따른 ECC 생산방식 경쟁력 우위
 - NCC 기준, 원재료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 고유가 대비 가스 가격은 낮게 지속됨에 따라 ECC 생산방식 경쟁력 우위

구분	공법	주요국	원가	생상품 구성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납사 (석유)	NCC (Naphtha Cracking Center)	동아시아 서유럽	437 ~450	31%	16%	10%	23%
가스	ECC (Ethane Cracking Center)	중동(천연) 미국(세일)	117(천연) ~211(세일)	75%	2%	3%	5%
석탄 메탄올	CTO/MTO (Coal/Methanol to Olefin)	중국	574	50%	50%	생산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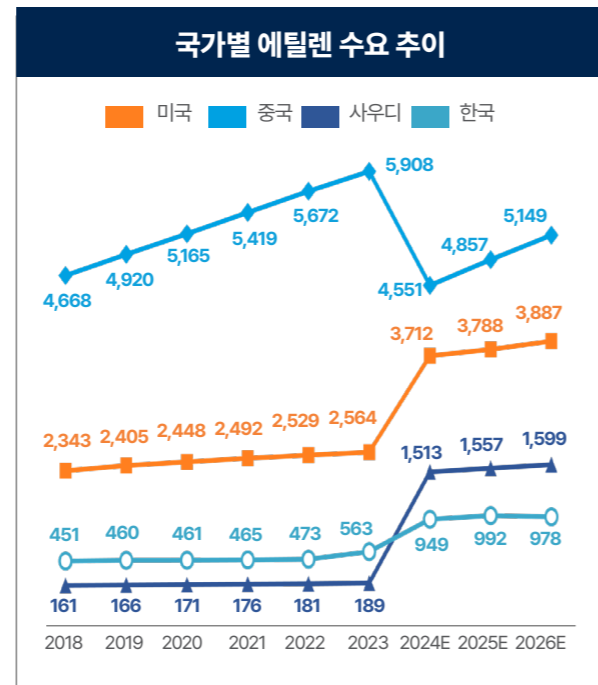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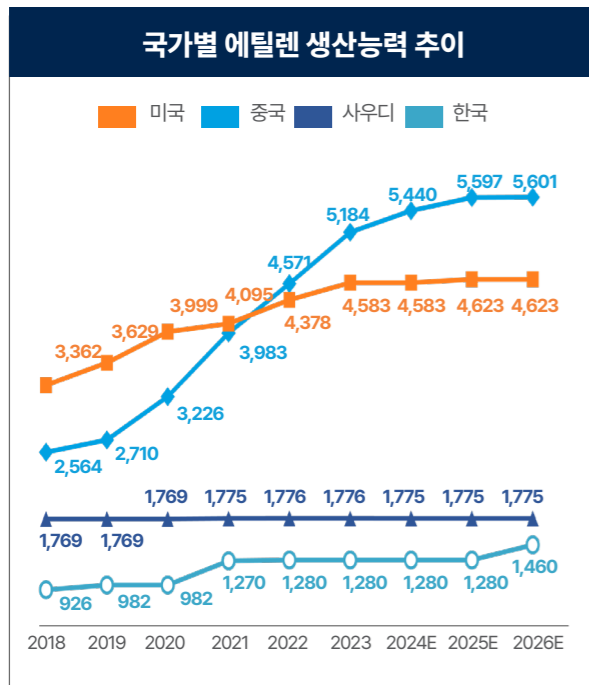
■ 중동 및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

○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 증가 대비 수요 회복 부진

-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 2018~2023년 4,800만 톤 증가 대비 글로벌 수요 3,284톤 증가
-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연평균 7% 증가, 수요 연평균 5% 증가

○ 2026년 국제 생산능력 23,631만 톤, 수요 20,189만 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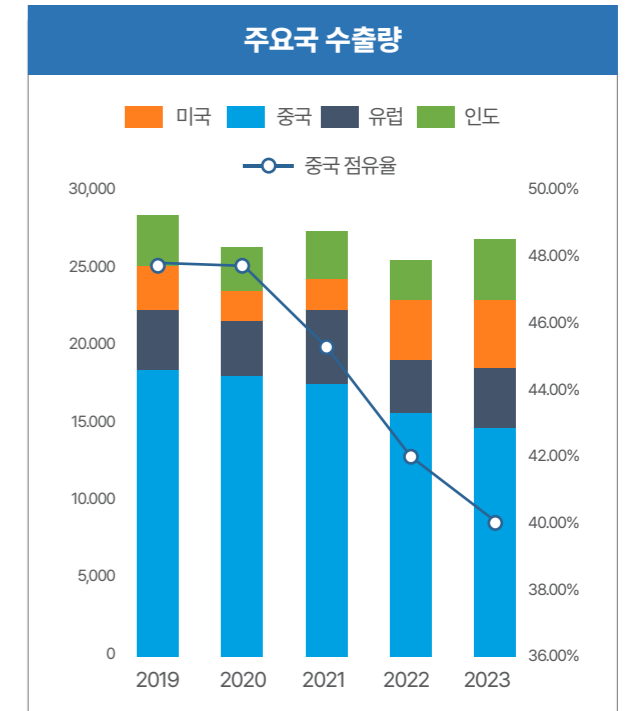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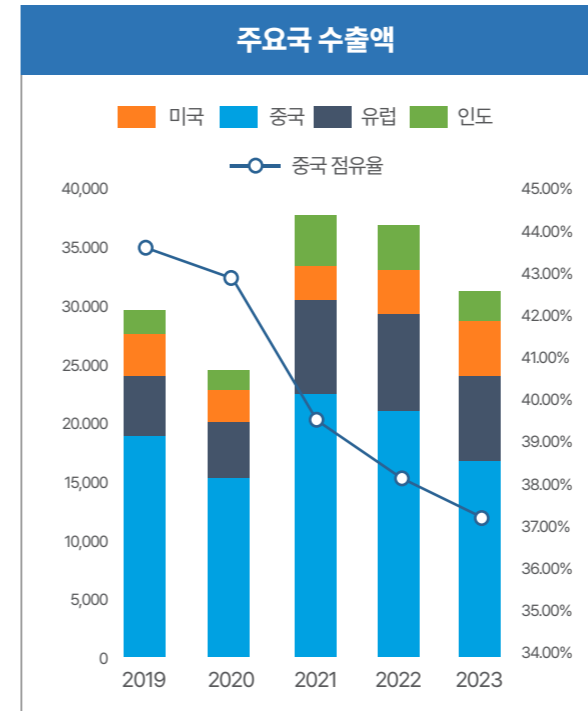
- 수요 회복 지연으로 공장 가동률 개선에 부정적 영향



■ 저탄소 친환경 생산

○ 고강도 환경규제 대비 저탄소, 친환경 생산전략 필요

- 중국 자급률 확대 정책으로 중국 수출 비중 지속 감소
- 수출 다변화 전략으로 유럽 및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저탄소 생산방식 전환 필요



2. 국내 동향

■ 국내 석유화학단지별 설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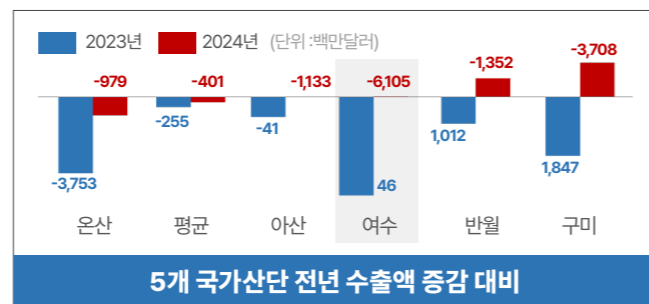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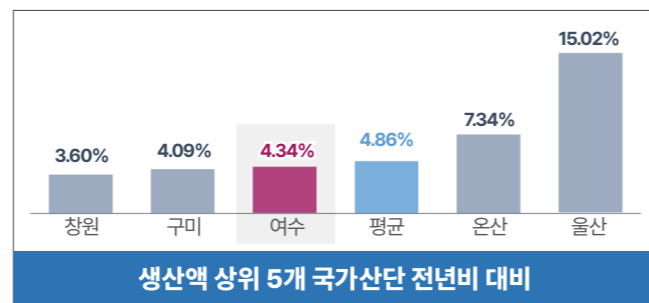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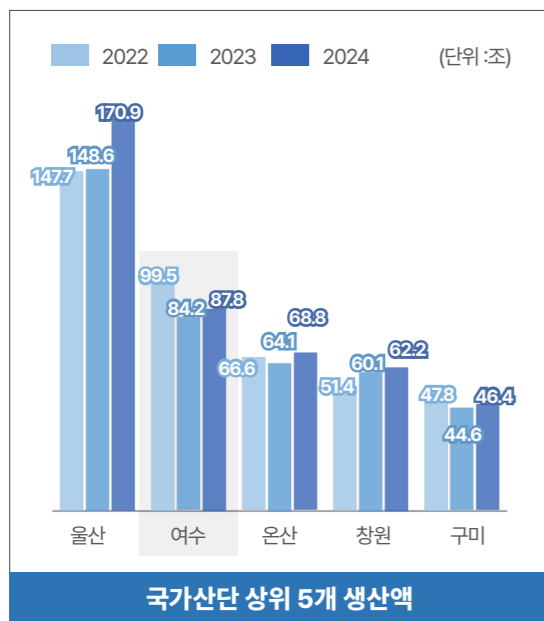


구분	정유기업	석유화학산업		가동시점
		NCC	유도품	
울산단지*	2	2	89	1972년
여수단지	1	4	93	1979년
대산단지	1	4	55	1994년
기타지역	1	-	21	-
합계	5	10	258	-

*(주)온산 포함

■ 여수국가산단 내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실적지표

<p>2024년 에틸렌 생산능력</p> <p>6,265천톤/년 국내 1위, 49%</p>	<p>2024년 석유화학 생산액</p> <p>207조원 제조업 1위, 98.43%</p>	<p>2024년 석유화학 수출액</p> <p>75.4억불, 제조업1위, 총 수출의 98.43%</p>	<p>2024년 석유화학 고용</p> <p>2.18만명 전체 업종의 87.39%</p>
--	--	---	---



3. 전라남도 석유화학산업 추진현황

■ 산업위기 선제대응 및 구조 고도화

○ 여수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2025.5.1.)

- (지정기간) 2025. 5. 1. ~ 2027. 4.30.
- (지원내용) 긴급경영자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정책금융, 고용안정지원

○ 전남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추진단 신설(2025년 1월)

- (목적) 여수 지역의 석유화학 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정부 경쟁력 제고 방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소속) 전라남도청

■ 친환경 전환을 위한 R&D 및 실증사업

○ 무탄소 연료 기반 NCC(납사분해) 공정 실증사업

- (총사업비) 410억 원 / (사업기간) 2025~2028년
- (사업목적) 석유화학 산업의 넷제로(Net-Zero)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배출을 저감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메가프로젝트 추진
- (협약체결) 전남도 여수시-GS칼텍스 협약 체결 (2024. 8. 6.).
- (주요내용) 이산화탄소 포집에서 활용(화학원료, 합성연료)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실증플랜트 설치 추진

■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 이차전지 소재 산업 확장

- 전해액 및 첨가제 생산라인 확대
 - LG화학 여수공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액 핵심소재 생산 규모 확장
- 양극재 전구체, 니켈 코발트 계열 소재 개발
 - GS칼텍스가 정유 부산물을 활용해 니켈 정제 공정 실증 추진
- 첨단소재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
 - 전남도 한국화학연구원 협력으로 고니켈 양극재 전해질 첨가제 국산화 프로젝트 진행

○ 스페셜티(고기능성) 화학제품 전환

- 고기능성 합성수지 연구개발
 - 내열성·내화학성이 뛰어난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PEEK, PPS)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친환경 가소제, 무독성 첨가제 연구개발
 - 기존 PVC용 유해 가소제(DOP)에서 친환경 가소제(DOTP)로 생산 전환
- 전자소재용 고순도 화학물질 연구개발
 - 반도체·디스플레이용 고순도 IPA, 특수용제 생산 확대

4. 전라남도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

- 범용 플라스틱에서 스페셜티 화학 첨단소재로 전환
 -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연구개발
 - LG화학이 옥수수 유래 PLA(폴리락티드) 생산 공장 구축
- 이차전지 소재 생산 확대
 - 여수산단 내 전해액, 양극재 전구체 생산 공장 확충
 - 수소 연료전지용 고분자전해질막(PEM) 소재 개발
 - 한국화학연구원과 연계한 실증 프로젝트 추진

■ 친환경 전환 및 탄소중립 대응

-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 및 그린수소, CCUS 도입
 - CCUS 실증사업 확대
 - 여수산단 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프로젝트 추진으로 포집된 CO2 합성연료(E-fuel) 또는 화학 원료로 재활용
 - 그린수소 연계 석유화학 공정
 - 기존 나프타분해 공정(NCC)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회수하고, 신안 풍열 기반 그린수소와 연계하여 친환경 공정으로 전환
 -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대응
 - 여수산단에 태양광과 ESS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에 참여

■ 스마트팩토리 및 AI 기반 공정관리로 디지털 전환

- 스마트산단 고도화, 빅데이터 AI 기반 생산 최적화
 - AI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공정 안전성과 품질 관리 향상을 위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 스마트 물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 여수산단 내 배관망, 전력망을 IoT 기반으로 통합관리
 - 스마트 안전관리
 - 드론·로봇을 활용한 설비 점검 자동화



02

지역과학기술 칼럼 COLUMN

지역과학기술 R&D 포괄보조금 전환 :
기회와 위험, 그리고 준비

광주연구개발지원단

지역과학기술 R&D 포괄보조금 전환 : 기회와 위험, 그리고 준비

광주연구개발지원단

1. 재정분권과 지역 R&D 정책의 기로

[포괄보조금 개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재정분권 강화 기조가 확산하면서 일부 중앙부처 사업이 포괄보조금(grant block funding)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연구개발지원단(이하 연지단) 육성지원사업 또한 2026년부터 포괄보조금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지단의 고유 역할을 약화시키고, 지속 운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나아가 지역 단위에서 수행되어 온 기획·조정 기능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의 특수성과 전략적 필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국가 차원의 균형 있는 과학기술혁신 체계가 흔들리고,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포괄보조금 전환은 단순한 재정방식 변경이 아니라, 지역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재편을 의미하는 중대한 이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역 R&D 육성과 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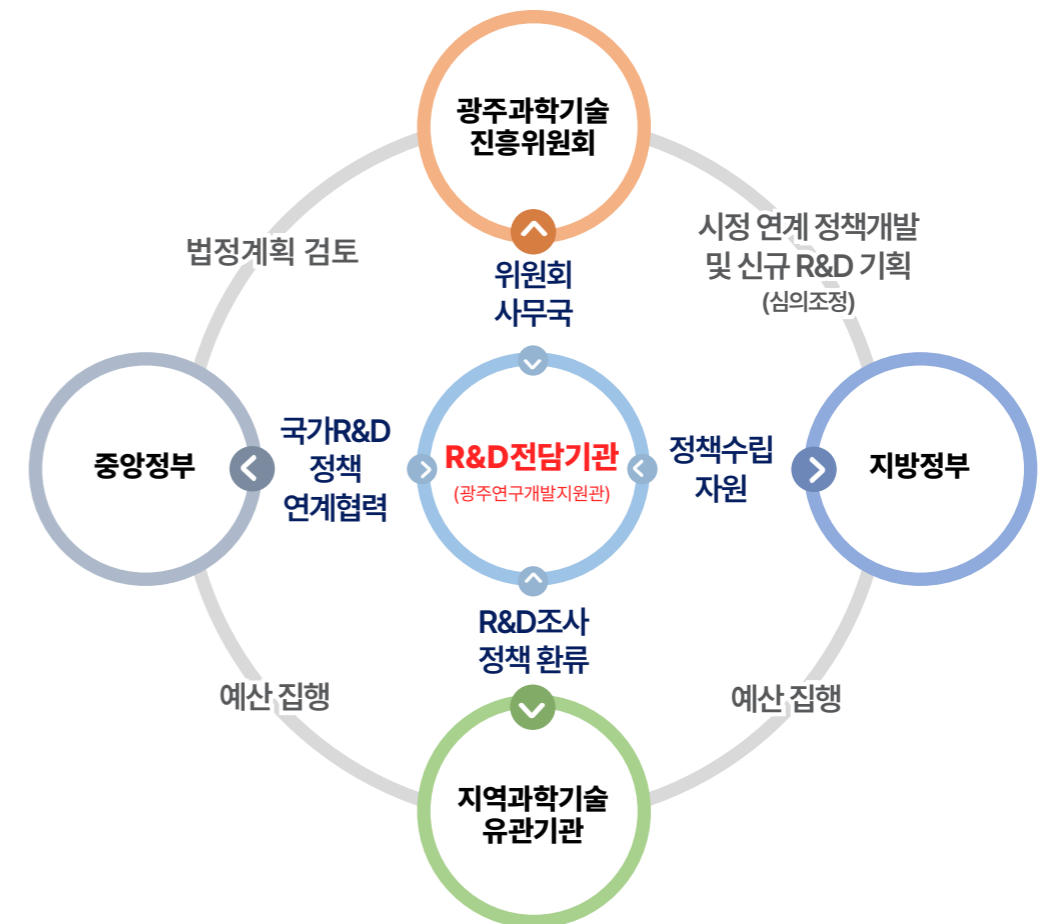
그동안 지역 R&D 사업은 중앙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면 각 지역에서는 해당 분야에 맞춘 인프라, 산업기반 등 지역적 환경을 활용해 중앙부처 공모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는 지역의 자원과 혁신역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중앙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지단을 중심으로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보조금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2년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 심의 단계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2026년부터 연지단 사업이 포괄보조금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 현시점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기회인 동시에, 연지단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수 있는 위험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괄보조금 전환은 단순한 재정구조 개편을 넘어, 지역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혁신역량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포괄보조금 전환의 양면성

[자율성 강화 기대]

포괄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세부적 통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기획·집행 자율권을 확대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역이 스스로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기회를 넓혀주고, 현 정부의 지역 주도 R&D 기조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지방과학기술진흥위원회, 지자체, 지역 R&D 전담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과학기술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실질적인 수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자율성이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획역량과 성과관리 체계가 지역 내에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그림1] 광주광역시 R&D 거버넌스 체계

[예산 축소 및 전용 위험]

지자체장의 재량권 확대는 정치적 필요에 따른 예산 전용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히 지방비 매칭 여력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학기술 R&D 예산이 다른 분야로 전화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역량 및 중립성 약화]

지자체의 R&D 기획·관리 역량 부족은 사업의 효과성을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지자체 산하 연지단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과제 선정·집행 과정 및 평가·사후 통제 전반에서 중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결국 연구개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정책 기반형 기회 기금 수행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3. 포괄보조금 전환이 연구개발지원단에 미치는 영향**[연지단 조직 존속의 불확실성]**

연지단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포괄보조금 체계로 전환될 경우 지자체 재량에 종속되어, 예산 삭감·사업 통합 등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업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역 과학기술·문화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 또한 축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지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선도·일반 연지단 기능 차별화 약화]

현재 전국적으로 6개 선도연지단과 11개 일반연지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포괄보조금 체계에서 예산이 획일적 배분될 경우, 각 연지단의 특화 기능과 차별성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 특히 선도연지단이 수행해 온 지역 특화분야 기획, 공동기획, 장기전략 수립 기능이 위축될 경우, 단기성과 중심의 사업이 우선시되어 과학기술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 이는 곧 지역 맞춤형 전략의 부재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지단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능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과학기술 정책 대응력 저하]

지자체가 경제·복지 등 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과학기술 기반 지역전략 추진력은 약화된다. 이는 국가 중장기 전략과의 정합성을 떨어뜨리고, 지역 전략산업 지원의 연속성이 끊길 위험이 있다.

[중앙-지방 연계 정책 추진력 저하]

기존 연지단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초광역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포괄보조금 체계로 전환될 경우 이러한 연계 구조가 약화되어, 초광역 협력과 공동기획이 단순한 절차적 형식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과학기술 전략 수립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지단이 가진 연계·조정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초광역 차원의 기획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 메커니즘 마련이 필요하다.

4. 대응방안 및 정책 제언**[중앙정부 차원의 보완]**

- 포괄보조금 내 지원계정 또는 자율계정에 '과학기술 목적계정' 신설로 최소한의 운영예산 안정적으로 보장
- 선도연지단은 지정형 기능보조사업으로 유지, 일반연지단은 기획·분석 중심의 정책지원금 형태로 전환 운영 유지
- 중앙-지자체-연지단의 공동기획 권한을 제도화하고,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

[연지단의 자구책 마련]

- 지자체 기획조정실 및 예산부서와의 정례 협의체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협력적 예산·정책 조정 체계 마련
- 성과지표와 로직모델에 기반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논리를 강화
- 산·학·연 전문가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기반 정책분석을 적극 활용하여 기획의 고도화와 전문성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

[타 부처 포괄보조금 사례 활용]

- 산업부 지역산업육성사업은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 및 지역혁신 기관 등 전담기구를 활용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유지(RIPS는 사업 관리·정보시스템 성격으로 참고 가능)
- 문체부 포괄보조금 사례에서는 지방문화재단을 통해 기획·성과관리 기능을 위임, 제도 안착을 도모

[제도적 위상 강화]

- 지역 R&D 전담기관인 연구개발지원단이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 필요
- 광역지자체 과학기술진흥조례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령에 연지단의 법적 지위와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
- 과학기술진흥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율형 R&D 사업의 배분 및 중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연지단을 단순 집행기관이 아닌, 지역 R&D 컨트롤타워이자 정책 플랫폼으로 제도화하여 기획·조정·집행·평가를 아우르는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 제고

5. 자율과 책임, 그리고 지속가능한 연지단

포괄보조금 전환은 지역 주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 변화다. 그러나 단순히 예산 자율권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과학기술정책의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지역별 기획역량 격차, 정치적 예산 배분, 연구개발의 중립성 훼손 등 다양한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지단은 단순한 집행기관을 넘어,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중립적 기획·조정 허브로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자체-연지단 삼자 협력구조를 제도화하고, 연지단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지속 가능한 전문조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광주연지단은 그간 축적된 기획·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 내 과학기술정책과 R&D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포괄보조금 체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역 R&D 컨트롤타워로서 자리매김할 때, 광주는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03

연구개발지원단

NEWS

1. 지역혁신 체계 구축
2. 지역R&D 추진 기반 강화
3. 지역특화 정책·사업기획·활용
4. 글로벌/광역협력



1. 지역혁신 체계 구축

재단법인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설립총회 개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재단법인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이하 강원연지단)'의 설립총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공식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중 과기정통부에 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다음 달부터 강원연지단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립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역의 부족한 과학기술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그간 도내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업무는 주로 강릉시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수행해 왔으나, 도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 단위 기획·조정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 2023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7,940억 원으로 전국 15위에 머물러, 중장기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강원연지단은 지역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평가를 핵심 임무로 하며,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수립한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의 세부 과제들을 직접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모빌리티 등 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목표로 한다.

보도자료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00193>

2025년 광주과학기술혁신연구회 출범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이하 광주연지단)은 지역산업 혁신과 과학기술 융합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과학기술혁신연구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연구회는 광주과학기술진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정책개발분과)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분야별로 발굴된 과학기술정책과 아젠다가 실제 지역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회는 미래성장 가능성과 정책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AI+X, ▲미래모빌리티, ▲양자기술, ▲그린에너지, ▲지역사회 및 과학기술정책 연구분야 등 5대 중점분야를 선정했다. 각 분야 연구회는 오는 9월부터 약 3개월간 운영되며,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 및 아젠다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연구 결과물은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향후 지역 과학기술정책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연지단은 이번 연구회 운영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래지향적 혁신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섬유패션 르네상스 추진단 운영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대구 섬유패션 르네상스 추진단」 운영을 위한 Kick-Off 기획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는 지역 섬유패션산업의 첨단화·고도화와 5대 미래산업(모빌리티·로봇·헬스케어·반도체/ABB·패션테크)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추진단은 산업·정책·기술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상시 협업·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규 R&D 과제 발굴과 2026년 제안요청서(RFP)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광역시, 대구테크노파크, 다이텍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지역기업(삼우기업, 로보스, 엔도비전 등)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석했으며, 대구 섬유패션 르네상스 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분과별 운영방안과 향후 추진과제 도출 방향을 논의하였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섬유패션산업이 미래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가치사슬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와 민간주도 R&D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앞으로 분과 운영을 통해 섬유-미래산업 융합 기반의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신규 메가프로젝트 기획, 지역 R&D 수요 연계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2026년도 부산광역시 연구개발 투자방향 포럼'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광역시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은 지난 7월 2일 '2026년도 부산광역시 연구개발 투자방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6년도 부산광역시 연구개발 투자방향(안)'을 발표하며 △창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필연기술 투자, △지역 전략산업의 전환을 이끄는 기술혁신, △점진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과학기술 투자 등 3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산업·기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부산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제언을 제시했다. 특히 토론에서는 투자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 분석, 지역 산업의 특수성과 연계된 기술 개발, 신성장 산업 분야의 가능성 등 실질적 실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2026년도 부산광역시 연구개발 투자방향」 최종안에 반영되며, 이후 부산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시비지원 타당성 조사, 사업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고 2026년도 부산광역시 연구개발 투자방향(안)

‘필연(inevitable)기술’ 투자확대와 전략산업 플러스 전략으로 여는 지역 산업생태계 전환의 원년

3대 분야 10대 투자방향

1. 지역 산업의 창발적 혁신을 일으킬 필연기술 투자

① (AI)	AI 중심의 기술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
② (양자)	차세대 양자기술을 활용한 파괴적 혁신 추진
③ (의료 바이오)	지역 특화 의료바이오 혁신기술 집중 육성

2. 플러스 전략을 통한 전략산업의 전환적 기술 혁신

④ (디지털 해게모나)	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미래산업 지배력 강화
⑤ (에너지 시큐리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기술 전방위 혁신
⑥ (넥스트 엔지니어링)	하이엔드 제조기술로 차세대 제조 패러다임 구현
⑦ (블루 이코노미)	디지털-전환경 기반 고부가 해양산업으로 전환
⑧ (라이프 테크)	실생활 밀착형 기술개발로 일상의 가치와 시민 체감성 제고

3. 과학기술 기반의 점진적 혁신성장을 위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

⑨ (인재육성)	미래기술 주도형 글로벌 인재육성 선순환 체계 구축
⑩ (기술창업)	생태계-투자-공간을 포괄하는 입체적 기술창업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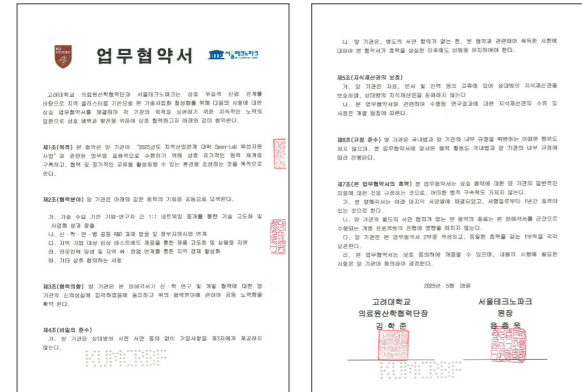
법·제도 정비	평가·체계 고도화	조사·분석 확대	시스템 구축·운영
·국가 법령 및 제도 최신화	·부산연구개발사업 투자·부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신규 추진	·부산연구개발사업 예측·투입 조사 분석 신설	·부산과학기술정보서비스(BTIS) 고도화

보도자료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736161>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사업화 협력 본격화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서울테크노파크)은 지난 5월,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학협력단과 「2025년도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병원의 실증 인프라와 R&D 역량을 서울지역 바이오·헬스 기업의 기술 수요와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서울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에 특화된 산·학·연·병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협력 모델로 평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의 정책기획 및 네트워크 연계 역량과 고려대의료원의 임상·연구 인프라를 접목하여, 기획-실증-사업화-글로벌 확산에 이르는 전주기 오픈랩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바이오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맞춤형 실증수요와 기술이전 연계를 기반으로 ▲우수 기업의 시장 진입 가속화 ▲임상 인프라 기반 테스트베드 제공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정책기획부터 기술 매칭·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오픈랩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오픈랩 사업의 초기 전략 수립단계부터 고려대의료원과 실무협의를 긴밀히 이어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서울시 전략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실증 기반 스케일업 지원체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남테크노파크 등 전국 4개 기관 연합 과학문화세미나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문화거점센터는 최근 이틀간 여수 신라스테이에서 ‘사이언스브리지: 과학문화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다.

28일 전남테크노파크(TP)에 따르면 지역별 특화산업과 과학문화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이번 세미나는 지역의 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는 4개 지역 테크노파크(전남·경남·경북·세종)에서 공동 주관한 행사로 치러졌다.

또한, 지역 간 협력 및 과학문화 공동 발전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지역 간 테크노파크 주도 과학문화 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제고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오익현 전남TP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과학기술 문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사이트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64016?ref=naver>

제1회 제주 과학기술위원회 개최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이하 제주연지단)은 지난 8월 제1회 제주 과학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기술위원회는 농림수산물분야와 에너지/자원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제주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한의학연구원, 농업기술원,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산학융합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날은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완료 사항에 대한 공유와 혁신계획 연계 2027년 중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주연지단은 제주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 과학기술 혁신기관과의 소통라인을 구축하고 지역 미래 선도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사업기획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국가대표 AI” 업스테이지와 충북 AI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충북 도내 기업 및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I) 협력 추진 -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은 인공지능(AI) 기술 전문 기업 업스테이지(대표 김성훈)와 ‘충북 AI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8월 12일(화)에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북 도내 기업의 AI 역량 강화와 공공부문의 AI 도입 지원을 통해 충북의 AI 전환(AI)을 가속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업스테이지는 ▲충북도내 기업(산업)의 AI 서비스 도입 지원, ▲AI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등 협력, ▲충북 도정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AI 지원 등 충북 AI를 위한 상호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업스테이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정예팀으로 선발된 국가대표 AI 선도기업이며, 글로벌 AI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대형언어모델 ‘솔라’를 기반으로 충북 AI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충북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충북 전략산업 중심 AI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본 협약을 통해 충북이 기획 중인 AI 산업혁신 사업의 경쟁력 있는 추진과 실제 실행력을 보유할 수 있는 민간 협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고근석 원장은 “AI는 충북 미래의 나침반이며 신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충청북도가 AI 전환을 선도하여 AI 중심의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6337>

충북도, 지방자치단체 최초 LG AI연구원과 협력체계 구축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청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LG AI연구원과 인공지능 기반 산업협력 모델 발굴과 공동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충북도는 22일 서울 LG AI연구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충북 전략산업의 인공지능 적용 확대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LG AI연구원, 충북과학기술원 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인공지능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는 앞으로 LG AI연구원과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혁신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LG AI연구원의 기술력과 지역 전략산업을 접목해 지역을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 시키겠다"며 "이번 협력은 충북이 산업형 인공지능 중심지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nocutnews.co.kr/news/6389117?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822041035

2. 지역R&D 추진 기반 강화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과제 중심' 과학기술혁신연구회로 전면 개편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이 '25년 과학기술혁신연구회를 '위 원 중심'에서 '과제 중심'으로 전환했다. 올해 1월 지역 혁신 기관·대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도의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 R&D를 공모했고, 그 결과 9개 과제 기획 연구회를 선정했다.

첫 출발은 5월 23일 「AI 기반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활성화 방안」 세미나였다.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원주 오키드호텔에서 열렸으며, 10개 기관 15명이 참석해 최신 동향과 정책·규제 이슈, 사이버보안 과제를 논의했다. KTR 정경호 센터장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도입 배경, 우수관리체계 인증, 심사·면제 기준 등을 소개했고, (주)브이웨이 이상민 이사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과 국제 규제, SBOM 도입, 공급망 보안 강화를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건강기기 3분류를 축으로 중장기 R&D를 설계하고, SaMD/SiMD 분야의 국제 기준(IEC 62304 등)에 부합하는 SW GMP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신규 개편된 강원 7대 전략산업과 연계해 춘천(제약)·원주(의료기기) 중심의 지역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과제 기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향후 과제 기획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3개 분야 중 포함 범위를 정하고, 전국공모형과 지역기반형 간 전략을 차별화하며, 부처별 성격에 맞춘 과제 설정과 데이터 기반 설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강원형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적합한 AI 모델을 적용해 비교우위를 확보하자는 데도 공감했다.

해당 연구회는 8월 2차 온라인 회의를 거쳐 10월까지 중장기 R&D 사업 RFP를 제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8개 연구회도 10월까지 각 2~3회 세미나·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대응용 신규 RFP, 이슈 페이퍼·리포트를 발간한다. 강원연지단은 이러한 연구회 운영성과를 'RFP 뱅크'로 축적해 중앙정부의 긴급 공모에 신속 대응하는 도(道) R&D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통해 지역 R&D 기반 강화 나선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도가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R&D) 기반 강화에 나선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7월 24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에 적합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간담회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정책 수립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 정책이 미취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견 연구자나 은퇴자 등은 정책의 공백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세분화된 대상별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IT·바이오·반도체·양자기술 등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한 R&D 지원이 강조됐다. 단년도 사업은 한계가 크다는 판단 아래, 최소 3년 이상 연속사업으로 구성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경기도 산업 구조를 반영한 기업 대상 세제 혜택과 같은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 등도 검토 과제로 언급됐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8월 말까지 최종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R&D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https://www.etnews.com/20250728000039>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강화교육 진행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연구개발지원단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담당자의 R&D 사업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연구조직을 집중 육성하고, 민간 주도적 R&D 기획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회차가 진행되었으며, 91개 도내 기업에서 113명의 부설 연구소 실무자가 참여하였다.

기업역량강화 교육 과정으로는 초급 및 고급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과정에서부터 R&D 정부사업 선정평가 대응전략,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기술변화에 대응한 단계별 신제품 기획 및 개발 실무, 그리고 신입연구원 R&D 입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도 경남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연구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R&D 교육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획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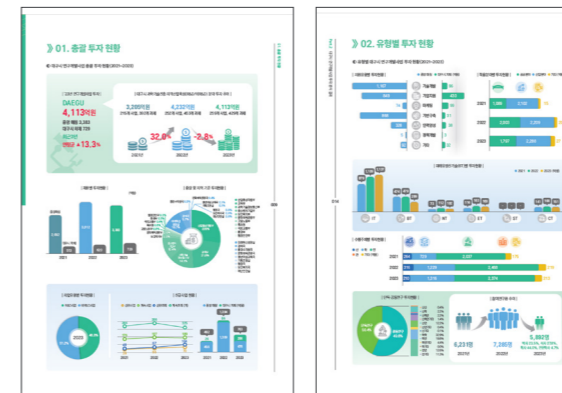
대구연구개발지원단에서는 대구시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사업성과 극대화 및 사업수행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를 추진하였다. 성과평가는 연지단에서 수행 중인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성과분석으로 수집한 각 사업별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유형별 성과 표준화 및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최종 성과점수를 산출하여 상·하위 사업을 선정한다. 이후 지역 내 기술·사업화·성과평가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전검토·서면·현장·심의평가를 추진하여 성과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우수·부진 사유를 도출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이러한 과정에서 우수사업에 대한 우수사례집 발간·배포와 지자체장 포상을 추진하는 등 성과 보상 체계 또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평가관리·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일조하고 있다.

참고사이트

<https://dtis.re.kr>

2023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성과분석 보고서(I) 발간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5월「2023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성과분석 보고서(I)」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구 과학기술정보서비스(DTIS)를 기반으로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총투자액은 4,11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120억 원, -2.8%)한 수치로, 국비 -4.6%, 시비 -0.2%를 기록했다. 특히 중앙 매칭 사업의 시비 비율이 57.1%로 전년 대비 -6.5%p 감소하였으며, 연구개발활동(R&D) 시비 매칭 비율도 -10.2%p 감소해 연구개발 규모가 일시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점은 사업화 매출 성과가 전년 대비 약 14.3%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연구 성과가 다소 줄어든 상황에서도 지역의 연구개발 활동은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져,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가능성이 보여주었다.

이번 보고서는 과제정보 19개 항목, 성과정보 26개 항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물이며, 향후 지역의 연구개발사업이 증거 기반 정책으로 추진되고, 지역 기업의 혁신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보고서 원문과 통계표는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DT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www.dtis.re.kr) -발간자료-조사분석보고서

BISTEP,

2025 기술경영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기술경영 선도상' 수상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은 2025 기술경영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기술경영 선도상(기관부문)'을 수상하였다.

'기술경영 선도상'은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한 기관에 수여된다. BISTEP은 과학기술 기반의 정책 기획, 지역 R&D 연계사업 운영, 기술경영 역량 확산을 통해 부산의 과학기술 정책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기술경영 선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딥테크 기반 기술사업화 혁신생태계의 진화'를 주제로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첨단소재, 차세대 에너지, 우주항공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딥테크 기술이 혁신생태계 안에서 성장하며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BISTEP은 '지방시대, 지역과학기술 혁신의 구조적 전환: 부산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진행해 부산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의 주요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부산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함으로써 지역 주도적 혁신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보도자료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737129>

제1회 부산과학기술인 정책포럼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은 지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주요 기관들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부산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을 지난 8월 11일에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 포럼은 지역 과학기술인단체 혁신주체 참여를 공식화한 첫 출발점으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부산과학기술인 콜로키움'을 주제로 총 50여 명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주제 발표에서는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이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국가 전략과 연계한 부산의 해양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부산의 미래를 묻다'는 주제로 열린 콜로키움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른 지역의 전략적 대응, 해양·수산업 중심지로서의 부산의 위상 제고, 과학기술계의 실질적 기여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부산이 글로벌 해양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협력이 해양신산업 주도권 확보의 핵심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BISTEP은 이번 부산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의 정례화를 통해 지역 과학기술인의 자발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정책 제언과 실행 기반까지 포괄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81208330495686>

세종시, 미래전략산업펀드 1호 투자 기업 '큐노바' 선정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세종시가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1호 투자기업으로 양자컴퓨팅 전문기업 (주)큐노바를 선정하면서 양자과학기술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알렸다.

시와 세종테크노파크는 미래전략산업펀드 선정 심의 결과 큐노바가 총 1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미래전략산업펀드는 지난 2월 첨단산업 유망기업의 투자·육성을 위해 결성된 투자조합으로, 총 400억 원(세종시 20억 원·민간 380억 원) 규모가 운용된다.

앞서 펀드 운용사 JB인베스트먼트는 시를 통해 추천받은 첨단산업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큐노바를 1호 투자기업으로 선정했다. 큐노바는 양자컴퓨팅 소프트웨어 분야에 원천핵심 기술을 보유한 첨단산업기업으로, 혁신성과 발전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투자를 받게 됐다.

특히 이번 투자는 실리콘밸리형 투자·멘토링 체계 도입의 첫 사례로, 미래전략산업펀드를 통한 세종 첨단산업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큐노바의 첨단 양자산업 기술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견인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미래전략산업펀드 첫 번째 투자기업이 시 핵심 전략산업 중 하나인 양자분야 기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미래전략산업 유망기업 투자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선정은 단순 투자를 넘어 세종형 벤처투자 생태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지역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후속 사업화부터 성장까지 책임지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사이트

<https://www.daej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3589>

보도자료

세종테크노파크 - 보도자료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eonilbo.com>)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제3차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울산연구개발지원단은 울산광역시를 통해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체계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지역 과학기술 정책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사업 구성의 추진 과정과 연구 기술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될 미래사업에 대한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연구개발지원단은 2025년에도 지속적인 기술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중장기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기획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제4차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연구개발 추진 전략과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81208330495686>

인천 과학기술 혁신 연구회(인공지능 분과)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인천 연구개발지원단은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 속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R&D 아젠다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인공지능 분과는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총 3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인공지능 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제조-물류-안전 등 인천 전략산업과 AI 기술의 융합을 촉진시키는 중장기적인 市 지원 전략 발굴을 위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특히 ▲인천이 보유한 공항·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AI 물류 실증사업 아이디어 ▲기업의 데이터 개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체계 ▲스마트 제조공정 전환 전략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 전문가 회의 운영 과정

- 1차(5/28): 연구회 운영 취지 공유, 인천시 AI 산업 실태와 중장기 지원 전략 논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아이디어 논의
- 2차(6/20): 인하대와 함께 AI, 제조, 물류, 안전 중심의 인천특화 방향 모색, 기업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체계 논의
- 3차(7/31): 인천의 공항·항만 강점을 활용한 AI 물류 실증사업 아이디어 논의



■ 기대효과

연구회를 통해 구축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인천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AI 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물류 경쟁력 기반을 강화했다. 이 성과는 지역 산업·시민사회로 확산돼 AI 기반의 지속가능한 혁신 구조 정착을 견인할 전망이다.



전남테크노파크, '섬의 날' 맞아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현) 전남과학문화거점센터는 8일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 위치한 노화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섬길따라 과학의 꿈을 잇다(서부권)'를 성황리에 마쳤다.

'섬길따라 과학의 꿈을 잇다(서부권)'는 올해 '섬의 날' 행사를 완도에서 진행하면서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섬 지역 학생들에게 과학적 호기심을 키우고 생활과 밀접한 과학 원리를 체험하며 미래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시했다. 3D펜·과학미술사·과학요리사·업사이클링 환경공예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1학년 학생은 "방학기간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과학체험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배워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참고사이트

<https://www.etnews.com/20250812000110>

탄소중립 연구회 TF3팀 기획회의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8월 12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차세대 안전·환경 필터 기술과 관련한 기획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연구진 등이 참석해 필터 기술 국산화 필요성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연구개발 과제의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재난 안전과 환경 부담 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수요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실증 과제 도출 방안이 검토되었다.

탄소중립연구회 위원은 "이번 기획을 통해 지역 특화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융복합연구회 TF2팀 기획회의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푸드테크 등 융합 기술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전북 역시 K-푸드 산업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신성장 모델 발굴에 나서고 있다.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최근 기획회의를 열고,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한 푸드테크 분야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조리 자동화, 지능형 주방 플랫폼, 디지털 레시피 표준화 등 다양한 기술 트렌드와 더불어, 글로벌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이 공유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K-푸드가 지닌 문화적·산업적 잠재력을 첨단 기술과 결합할 경우, 농식품 수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전북은 이미 농생명, 식품, 소재부품 분야를 아우르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향후 정부 정책과 연계한 푸드테크·AI 융합형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차전지반도체연구회 TF6팀 기획회의

전북연구개발지원단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공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전북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최근 회의를 열고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전환과 산업 표준화, 국산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정 최적화 등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도 함께 검토됐다.

이번 논의는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환경·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전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자리였다. 향후 지역 산업 기반과 국가 정책을 연계해 실질적인 혁신 성과로 이어갈 계획이다.

R&D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대상 맞춤형 컨설팅 추진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이하 제주연지단)은 R&D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R&D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컨설팅 지원 분야는 3개 분야로, ① 사업계획서 및 R&D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작성법에 대한 자문(R&D사업 전략), ②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방법과 ③ 지식재산권(특허) 확보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컨설팅에는 총 4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기업당 매칭된 컨설턴트의 자문이 2회씩 진행되었다.



컨설팅이 종료된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는 5점 만점 기준 전반적인 만족도 4.75점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었다.

제주연지단은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R&D 역량강화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재구축 본격 착수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남연구원은 지난 8월 22일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 제2캠퍼스에서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재구축 관련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다.

충남도는 노후화된 기존 홈페이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 이용환경 개선과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번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①이용자 중심의 친화적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②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취약점 개선 ③전문가 DB와 혁신 인프라 맵 등 기능 확장을 통한 활용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세부 재구축 계획을 수립했으며, 6월부터 8월까지 공공 SW사업 과업 심의와 보안성 검토를 거쳤다. 특히 지난 8월 22일 진행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수행 업체가 확정되었으며,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에 본격적인 과업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을 제공하고, 지역 연구·혁신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과기원, 'AI 기반 방사광가속기 데이터 활용과 산업혁신 전략 세미나' 성료...

- 국내외 사빅데이터·가속기 분야 연구자, 산업계 관계자 한자리에..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 -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 이하 충북과기원)은 7월 1일(화) 청주 오창읍 충북과학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 「AI 기반 방사광가속기 데이터 활용과 산업혁신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충북과기원과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방사광가속기 연구진,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오창에 건설 중인 4세대 다목적방사광가속기의 구축 현황과 향후 운영전략을 공유하고, 방사광 데이터를 활용한 AI 융합 연구 및 산업 응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개요(현태인 충북과기원 단장) ▲가속기 구축현황 및 연구데이터 시스템 계획(신승환 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단장) ▲AI·빅데이터 기반 체계적 연구데이터 관리방안(조완섭 충북대학교 교수) ▲대용량 방사광 데이터 구축 사례(엄인태 포항가속기연구소 부장) ▲해외 방사광가속기 활용 사례(김태경 충북대학교 교수) ▲AI 기반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 사례(한영준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실장) ▲방사광 기반 산학연관 AX 거버넌스 패널토론편(김평중 충북도립대학교 교수 외 6인) 순으로 진행됐다.

현태인 단장과 발표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연구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초정밀 물질 분석과 실시간 실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방사광가속기 데이터와 AI 기술의 융합은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전반에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근석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은 환영사에서 “방사광가속기와 AI를 활용함으로써 반도체, 바이오 등 충북의 주력 산업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세미나가 산·학·연·관이 함께 방사광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1816>

3. 지역특화 정책·사업기획·활용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이차전지산업 육성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8월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원 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의 산업 특성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이차전지 전략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간 점검 성격으로, 경기도 관계자와 산학연 외부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해 연구진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과제별 방향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보고회에서는 경기도의 산업 구조 분석을 토대로 특화분야와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구분과 협업 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클러스터 조성 등 제도 설계는 중앙정부가,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기반 사업은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용 후 배터리 분야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라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큰 영역으로 주목됐다. 이에 따라 배터리 재사용·재제조·인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과제 발굴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기업 간 정보 공유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 설정과 협력 주제 도출이 과제로 떠올랐다. AI 기반 기술지원 등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과제를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 중심의 지원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경남 과학기술혁신협의회 2차 개최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연구개발지원단은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활성화와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남연구개발지원단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경남의 혁신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총괄하고 거버넌스 체계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세라믹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개 출연연과 경상국립대학교, 국립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인제대학교 등 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에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남의 중점산업 제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회 참여 기관과 대학 간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자리를 가졌다. 향후 경남의 신규 중점 과학기술 분야와 거점 연구기관을 도출하고,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서울 산학연 기술교류회 개최

경북연구개발지원단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6월 25일(수) 대학의 최신 기술과 인력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 향상 및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서울 산학연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가 최초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술교류회로 서울대 공대 교수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계자,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산학연 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서울대와 금오공대의 최신 연구 성과 및 기술을 공유했으며, 서울대-지자체 출연기관-지역 대학이 기술이전, 공동연구, 인재 교류에 있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은 서울대와 지역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산학연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연구개발 혁신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협력 제안 기회로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2025년 산·학·연 미래유망기술 R&D기획지원 추진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이하 광주연지단)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과 과학기술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2025년 산·학·연 미래유망기술 R&D기획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기획지원은 광주지역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과학기술혁신계획)과 민선8기 중점분야 전략을 뒷받침하고 지역의 대학·연구기관·기업이 협력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광주연지단은 총 2회에 걸쳐 지역과학기술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역 R&D혁신주체들이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첨단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분야에서 다양한 과제가 제안되었으며, 이 중 4개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과제들은 약 3개월간 광주연지단 실무진과 함께 기획과정을 거치며, 맞춤형 기획지원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연구자와 기관의 기획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된다.

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과제기획을 단순한 과제 발굴을 넘어, 지역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향후에도 과학기술인·산업계·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적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기술혁신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광주 미래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중앙 및 지역 R&D 기획·유치 지원 과제선정 및 협약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중소기업의 R&D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 및 지역 R&D 과제 기획·유치 지원사업」 최종 평가위원회를 열고 최종 6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들은 지난 7월 11일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기획 단계에 착수했으며, 과제 유치 성공을 위해 기업-대학 수요 맞춤형 과제 발굴, 전문가 사전 컨설팅, 전담 PM 배정을 통한 1:1 워킹그룹 운영 등 전 주기적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기업 단독이 아닌 지역 기업-대학 간 1:1 컨소시엄을 지원하여, 기업의 R&D 기획 역량 강화는 물론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 혁신, 인력 양성, 연구개발 역량 제고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은 대학의 전문 지식과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으며, 대학은 기업의 현장 경험과 실질적인 연구 수요를 반영해 연구의 실효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보도자료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5605

2025년 지역현안해결형 R&D 과제기획위원회 개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1 PM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방안

최근 5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수는 감소하였으나, PM(Personal Mobility) 사고는 약 2.5배 증가
 -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년 209,654건에서 '24년 196,349건으로 감소 추세
 - PM 사고 발생건수는 '20년 897건에서 '24년 2,232건으로 약 2.5배 증가
 - 특히, PM 사고 치사율은 '24년 기준 건수(2,232건) 대비 1.0%를 넘어 같은 기간 승용차 치사율 0.9% 보다 높음
 ⇒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PM 사고는 증가하고 있어 사고감소 대책 필요

PM 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 (단위: 건, 명)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전체	209,654	203,130	196,836	198,296	196,349
사망자	3,081	2,916	2,735	2,551	2,521
PM	897	1,735	2,386	2,389	2,232
사망자	10	19	26	24	23

※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조사시스템 통계자료(2025)

전기차 및 PM 화재사고는 '23년 156건 발생, 누적 피해액은 약 50억원(소방청)임
 - 전국 화재사고 중 전기차전기와 PM 화재사고는 '20년 882건에서 '23년 156건으로 증가
 - PM 배터리(리튬이온) 과충전, 외부 충격, 높은 기온으로 인한 열폭주 현상이 주원인
 ⇒ PM은 전기와 같이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 예방 및 관리 필요

강남역 인근 폭발사고(조선일보, '24.10.31) 대전교통공사 PM 화재 운헌(디뉴스24, '25.5.23)
 '25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PM 불법 방지, 다인 탑승 등 민원은 1,165건(25.6 기준)
 - 최근 3년간(22.6~'25.6) 총 27,423건, 월평균 '22년 591건에서 '25년 1,165건으로 증가
 - 주요 내용은 인도 불법 방지, 안전모 미착용, 다인 탑승, 출입 및 통행금지 요구 등
 ⇒ PM 불법 방지 등으로 인한 보행환경 위협으로 국민 생활불편 발생

PM법 발의, 제정부 공약 등 PM의 안전한 이용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상황
 - PM법은 PM의 관리, PM의 안전, PM 대역사업, PM 대역사업자단체, PM 관련 통계 작성 등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 교통안전 편의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함
 - 이재명 정부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정책엔 공유형 PM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PM법) 제정 포함
 ⇒ PM 이용자 및 보행자 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 발의,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PM 안전 및 편의 제고 기술 개발 필요

현안의 지역적 특징 (대구시 문제 당위성)

대구시 PM은 '24년 기준 7개 업체가 11,520대를 운영 중
 - PM 대역업체는 '20년 8월 2개 업체에서 '24년 4월 7개 업체로 확대
 - PM 등록대 수는 11,520대로('24.12 기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이용률이 높은 수준
 - 대구시 PM 사고는 '24년 129건이 발생하였고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상황
 - 대구시 PM 사고는 '20년 43건에서 '24년 129건으로 약 3배 증가
 - 주요 사고원인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

대구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대구형 과제기획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현안 해결형 R&D 과제기획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구시가 직면한 사회·산업·환경 등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한 R&D 과제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안의 필요성·시급성 검토 및 문제정의서 작성을 수행하였다.

주요 현안에는 ▲개인형 이동수단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대응체계 ▲고령자·어린이 보행안전 확보 ▲AI·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지하복합시설물 피난자원 정보체계 구축 ▲에너지 취약계층 건물 성능평가 ▲산업단지 약취·대기오염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에 도출된 현안정의서를 기반으로 지역 수요 맞춤형 신규 R&D 과제 기획과 부처 R&D 유치 연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 인공지능(AI) 종합계획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대전연구개발지원단



8월 8일 금요일, 대전연구개발지원단은 대전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책 도출을 통한 인류 도시 대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AI 종합계획 수립 연구회」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첫 걸음을 떼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역 내 전문가 13인과 대전연구개발지원단 연구원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분야별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기술사업화, 정책분야 크게 세 분야로 그룹화하여 진행하였다. 연구회를 추진하여 AI 기술 및 산업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선순환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회에서 대전 AI 현황 등 기초조사 자료 소개와 연구회 추진 방향, 연구회 그룹별 역할 등 논의를 통해 향후 연구회 진행의 좌표를 명확히 하였다.

논의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대전시가 R&D·실증 중심 도시라는 차별성을 강조하여 지속 가능한 전략 수립 필요
- 2) 대전 전체를 테스트베드화, 규제 샌드박스 및 특례를 활용하여 실증(POC) 중심의 연계 구조 설계 제안
- 3) 비전과 목표를 AI·R&D·실증 중심 키워드로 재정립,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
- 4) 정책·예산을 연계할 방안 마련
- 5) AI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 해결, 대전시의 문제 해결 전략 강화

향후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안요청서를 수령하여 수요조사 취합 및 중간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상시 전문가 자문회의와 최종 결과 공유를 끝으로 연구회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AI 종합계획 수립 연구회」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전시 AI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 R&D·실증 중심 도시로서 대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산업클러스터 조성 기획 지원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서울테크노파크)은 2025년 7월 8일, 금천구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약 17만m²)를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동 협력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력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발맞춰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이 추진하는 「서울시 지역 주도 정책·사업 기획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R&D)·산업 생태계 확장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테크노파크와 금천구는 기획 단계에서 ▲서울 및 금천구 전략산업 조사·분석 ▲산업입지 적합성 검토 ▲앵커기업 유치 및 기업 생태계 확장 전략 마련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국가산업단지 G밸리와 연계성을 고려해 금천구가 서울 서남권 산업벨트의 확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시험·인증·실증 지원, 네트워크 연계 등 현장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획은 단순한 공간 조성을 위한 협력이 아닌, 기술 개발-사업화-스케일업-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기업지원 허브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테크노파크는 이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자치구-지역 연구개발지원단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지자체의 산업·R&D 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후속 사업 기획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앞으로도 지역 산업수요를 기반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과학기술·산업 R&D 기획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https://www.startupn.kr/news/articleView.html?idxno=53044>

서울의 과학기술·산업 혁신 이끌 정책 아이디어 찾는다

서울연구개발지원단



Next SEOUL
2025 미래도시 서울

과학기술·산업 혁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테크노파크가 서울시 과학기술·산업 분야의 미래 혁신을 이끌 정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공모개요

- 목적** 서울시 맞춤형 과학기술·산업 혁신 정책 아이디어 발굴, 우수 제안서 후속 지원을 통한 정책 기획안 연구보고서 기획 지원
- 대상** 서울시민,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속 공무원 (개인 및 팀(2~3인), 서울소재 기업 연구소, 벤처자 및 대학(원)생(학생 포함) 모두 가능)
- 주제** 과학기술진흥,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도시문제 해결, 기타. 서울시 과학기술 진흥 방안, 서울시 전략산업(시, 로봇, 바이오, 핀테크, 패션 등) 지원 전략, 지역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자치구(도시) 문제의 혁신 기술 기반 해결 방안, 서울시 혁신 역량 기여 가능 아이디어
- 사상** 대상 200만원(2), 최우수상 100만원(2), 우수상 50만원(4), 장려상 30만원(4) ※ 서울시민 및 서울시 공무원(자치구 포함) 별도 Track으로 시상

신청 지원

- 기한** ~2025.09.17 (수)
- 제출** (E-mail) mskim@seoutp.or.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 (T) 02-944-6073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서울테크노파크)이 서울시의 미래 혁신을 주도할 과학기술·산업 혁신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미래도시 서울 과학기술·산업 혁신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요를 반영해 지역 맞춤형 혁신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그간 수행해 온 R&D 조사·분석, 전략산업 발굴, 정책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제안은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고도화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주제는 ▲과학기술 진흥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도시문제 해결 ▲기타 혁신 정책 등 5개 분야다. 전략산업 육성 분야에는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의료, 핀테크, 양자 등 서울형 R&D 핵심 분야가 포함된다.

참여 대상은 서울시민,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서울 소재 기업·연구소 재직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이다.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은 소정의 심의를 거쳐 차년도 이후 정책 연구개발 주제로 반영되며, 정책 기획안·정책 연구보고서 작성 등 후속 활동을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 정책 제안에 필요한 실무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사이트

bit.ly/4pcPMfE

보도자료

<https://www.venturesquare.net/999992>

세종테크노파크, 자율주행 산업 육성 실태와 발전 과제 추진

세종연구개발지원단



19일 세종테크노파크(이하 세종TP)가 주최한 '세종미래경 제포럼'에 따르면, 자율주행 대중교통 상용화 촉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 정비, 영상처리 등 규제 완화, 자율주행 R&D 예산 확충, 컨트롤타워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운전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자율주행차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고조사 처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신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바꾸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다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자율주행 신산업 관련 정책과 규제, 상용화 촉진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특성을 반영한 법규와 제도 정비,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R&D 예산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선도 도시인 세종시는 BRT 전용구간 확보 등 최적의 인프라 구축, 충분한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 우수한 시범운영 실적 평가(A등급)*, 세종 스마트시티 핵심 서비스 등의 강점이 있다.

* 2024년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 평가결과 A등급 매우우수 획득

세종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 시 전역에 대한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 지정, 자율주행 AI 데이터셋 구축,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기능 확충, 자율주행 인식 제고를 위한 요금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

양현봉 세종TP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자율주행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세종시가 자율주행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전국 최초로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 세종시와 함께 자율주행 선도 도시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사이트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229>

보도자료

세종테크노파크 - 보도자료

*출처 :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

인천 과학기술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기획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인천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Incheon Science Connect) 인천 과학기술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였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총 3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3대 추진전략과 7개 세부과제를 도출했으며, 사업기획(안)을 2026년 신규 사업 추진 및 예산 반영을 위해 인천 시에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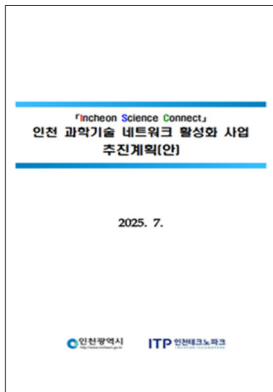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인천은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공고히 하고 세대 간 지식 순환과 전략산업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 연구자 육성과 대형 국가과제 유치 역량을 확보하며, 연구성과가 지역산업과 시민사회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가 회의 운영 과정

- 1차(5/22): 인천시 과학기술 자원 및 역량 분석, 사업 기획 방향 논의
- 2차(6/19): 과학기술 네트워크 운영 사례 비교, 세부 필요 사업 검토
- 3차(7/21): 2026~2028년 3개년 추진전략 및 세부 과제 도출

■ 3대 추진전략 및 7개 세부과제(2026~20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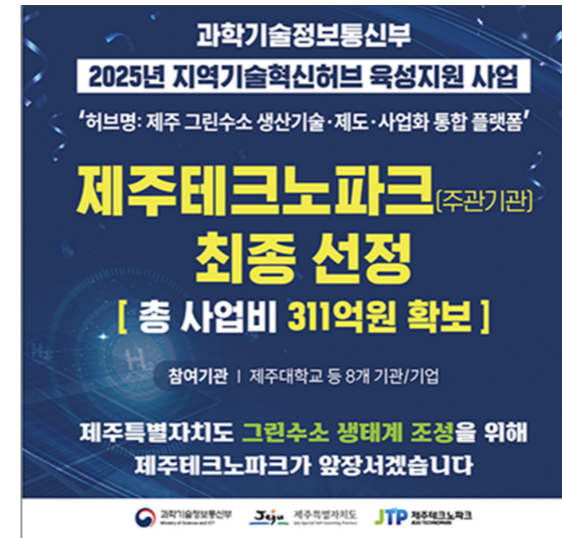
- ① [Integrate] 인천 과학기술인 통합 네트워크 강화
 - 1-1. 인천 과학기술인 포럼 운영
 - 1-2. 인천 과학기술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 1-3. 인천 과학기술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② [Support] 인천 과학기술 리더 혁신 파트너십 구축
 - 2-1. (고경력연구자) 인천 과학기술 선도 연구팀 지정 운영
 - 2-2. (신진·유망연구자) 인천 차세대 연구자 육성 지원
- ③ [Cultivate] 미래 과학기술인 성장 기반 조성
 - 3-1. 인천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결·교류
 - 3-2. 연구기획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Incheon Science Connect 인천 과학기술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안)	
사업명	Incheon Science Connect 인천 과학기술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비전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끄는 과학기술로 연결되는 도시 인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인천 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인천 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주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 1 [Integrate] 인천 과학기술인 통합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과학기술인 포럼 운영 인천 과학기술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인천 과학기술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 2 [Support] 인천 과학기술 리더 혁신 파트너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경력연구자 인천 과학기술 선도 연구팀 지정 운영 신진·유망연구자 인천 차세대 연구자 육성 지원 전략 3 [Cultivate] 미래 과학기술인 성장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결·교류 연구기획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제주지역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 선정

제주연구개발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이하 허브 사업) 신규과제를 추진할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 TP)는 주관기관을 맡아 사업을 수행한다.

해당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5년간 모두 311억 원이 투입되는 'RE100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술-제도-사업화 통합 플랫폼'(이하 '그린수소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린수소 플랫폼의 핵심 목표는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 그린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요 임무는 실증시설 설치와 운영, 기술검증, 원천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TP는 주요 임무 추진을 위해 '(1세부) RE100 그린수소 수전해 실증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관리', '(2세부) 신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수전해(모듈) 핵심기술 개발' 등 2개 세부 과제를 운영하고, 성과점검과 사업화 지원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아시아경제(“기술혁신허브’ 제주-전북 선정...특구재단 “혁신생태계 구축”)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80709402498983>

헤드라인제주(제주테크노파크, ‘그린수소 특화’ 기술혁신허브 주관기관 맡는다)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038>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산불 방재 R&D 사업 기획 본격화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남연구개발지원단이 지역 맞춤형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반 산불 예측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3월부터 산불 방재 분야 기획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 위원회에는 AI, 드론, GIS, 산불 방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5월에는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7월에는 이를 토대로 과제트리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 8월 회의에서는 마련된 과제트리를 기반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공유하고, 세부 내용 보완과 구체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구개발지원단은 앞으로 열릴 기획회의에서 사업 기획보고서를 최종 확정해 국가 R&D 사업 제안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AI 인사이트 포럼' 성료... "AI 전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박차"

- KOSA(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개최, 선도기업과 AI 협력 제안 -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하 충북과기원)은 6월 25일(수), 서울 삼성호텔에서 「AI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초거대AI추진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과기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전자신문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였으며, KOSA 회원사, 충북 디지털 우수기업 대표,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본 포럼은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사업」의 1년간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국내외 AI 산업계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는 ▲충북 우수기업 6개사 소개 ▲충북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사업 발표(충북과기원 현대인 단장) ▲특별강연 'AI 전략과 AI 에이전트 활용 방안'(마이크로소프트 이견복 상무)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소개된 충북 디지털 우수기업인 성창(주), (주)에니아소프트, (주)디엘정보기술, (주)시큐웨어, (주)비즈포스, (주)만나 CEA는 모두 AI 기반 실증 및 상용화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KOSA 회원사와의 공동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을 제시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현대인 단장은 발표를 통해 ▲디지털 앵커기업 및 우수기업 육성 ▲글로벌 AI 네트워크 구축 ▲대규모 AI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한 충북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설명하고, KOSA 회원사와 충북 기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고근석 충북과기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행사가 수도권외의 디지털 선도기업과 충북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AI·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과기원은 오는 9월과 11월 청주에서 후속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기업과 전국 AI 산업계 간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https://www.cbiz.kr/news/articleView.html?idxno=29037>

4. 글로벌/광역협력

수도권 연구개발지원단, 협력 세미나로 역량 강화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연구개발지원단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등 15명 내외가 참석해 수도권 주요 R&D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 R&D 기관 간 실질적인 연계와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이 안고 있는 공통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미나에서는 각 지역 연구개발지원단이 추진한 주요 사업 현황과 성과,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사업 추진 배경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상호 학습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수도권 R&D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며, 향후 공동 연구와 정보 공유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간 정보 교류를 넘어 수도권 전체의 연구개발 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되었다. 향후에도 이러한 교류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수도권 혁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지원단 경남·전남 광역협의회 개최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 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8월 21~22일 여수에서 열린 「연구개발지원단 경남·전남 광역협의회」를 전남연구개발지원단과 함께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각 지역의 연구개발지원단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사업 기획을 통한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각 지역 특화산업의 연계를 통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 인프라 활용, 지역 기업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아젠다로 다뤄졌으며,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성과 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과 중장기 발전 전략도 모색하였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경남·전남이 주도하는 광역 차원의 신규사업 기획 및 산업 연계 강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교류회 개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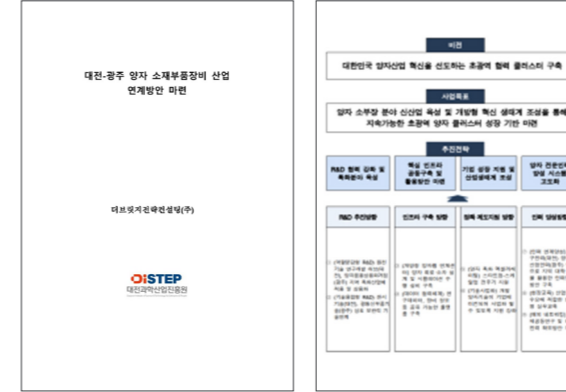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서귀포시에서 「2025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창출 관리 극대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산업분야 연구개발, 산업정책, 기술사업화 전략 및 우수성과 사례 발표·공유를 통해 성과창출과 사업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전국 각 시도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리기관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하반기 계획 ▲2023~2024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의 우수성과 사례 ▲성과조사·분석 수행 관련 교육 ▲업무 수행 개선 및 성과창출·관리 극대화를 위한 의견수렴 ▲공정·투명한 평가운영을 위한 청렴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대구 지역은 전기자율 모빌리티 부품 개발 분야에서의 대표적 우수성과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향후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 및 지역혁신대전 기업 추천 등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앞으로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우수성과의 확산과 성과창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회 및 워크숍 운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광주 양자 소부장 산업 연계 방안 마련 연구 결과보고

대전연구개발지원단



대전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간 상생 발전 및 균형 성장 모델 확립을 위해 대전-광주 양자 소부장 산업 연계 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지난 7월 24일 최종결과 보고를 진행함

이번 연구를 통해 양자 소부장 분야 신산업 육성 및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초광역 양자 클러스터 성장 기반 마련하고자 함

대전-광주는 각 지역의 강점 연계를 통해 상호 보완적 기업 생태계 기반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중요하게 여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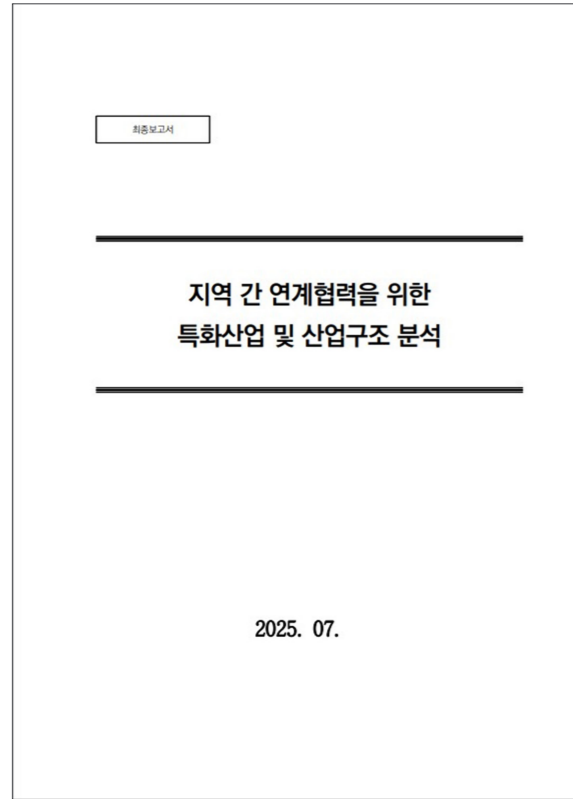
정책·SWOT·인프라 분석 기반 수행 전략 및 실행 가능성 종합 검토를 통해 양자 소부장 R&D 과제 및 비 R&D 과제를 선정

- (R&D 과제) 양자 소부장 아이템 분석 기반 8종 연구개발(안) 발굴
- (비R&D 과제) 도출된 환경분석 결과, 지자체 지원 방향 등 분석을 통한 제도 지원, 인프라, 인력 양성 과제 7종(안) 발굴

도출된 협력과제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향후 양자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신규 사업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지역 간(대전-충남) 연계협력을 위한 특화산업 및 산업구조 분석

대전연구개발지원단



대전과학기술진흥원은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주도의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대전-충남」지역 간 연계협력을 위한 특화산업 및 산업구조 분석」을 추진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인접 지자체 간 인프라, 인력, 산업기반 등 연계를 통한 경쟁력 제고의 가능성과 권역 내 주요혁신 주체 간의 협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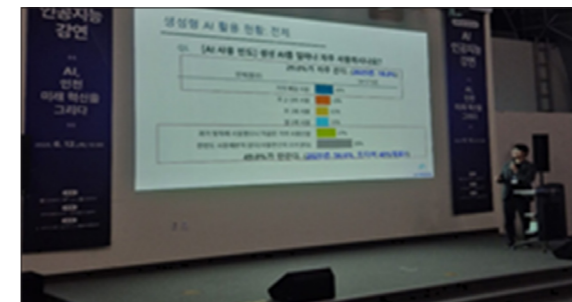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 (산업분석) 대전은 공공·교육·과학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이며, 충남은 기계, 전자, 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 강점을 보유, 지역 간 통합시 충남은 지역 내 완성재 체계로 높은 산업파급 가능성이 있으며, 대전은 과학기술 기반의 전략적 중심 역할 가능
- (기술협력) 대전-충남의 잠재적인 기술협력 분야로 바이오헬스 및 의약품, 산업 및 서비스 지능화, 촉매 기반의 에너지 변환 등이 있으며, 특히 바이오헬스 및 스마트제조, 저탄소 에너지, 정밀화학 분야는 향후 초광역 기술협력 모델의 주요 산업분야로 유망
- (정책방안) 통합을 통한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로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실증 중심의 사업화 생태계 구축 및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충청권 단위 산업 연계 로드맵과 특화된 기능별 역할 분담을 통한 전략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책을 지원하고, 초광역 공동R&D를 통한 지역주도 혁신을 위해 타권역까지 조사·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초광역 연계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으로 찾아가는 AI 미래포럼(AI, 인천 미래 혁신을 그린다)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인천 연구개발지원단은 인천시,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 공동으로 「AI 미래포럼 : AI, 인천 미래 혁신을 그린다」를 6월 12일 인천 스타트업파크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기업, 연구자, 대학생,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AI가 열어갈 인천의 미래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

임우형 과실연 공동의장은 산업·바이오 혁신을 이끄는 AI의 역할을 소개하며 구조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마음AI 유태준 대표는 인천이 Physical AI 실증의 최적지임을 제시하며, 공항·산단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AI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과실연 하정우 공동의장은 인천 시민의 AI 문해력 조사 결과,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활용률(35%)을 기록하여 AI 리터러시 선도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토론크서트

- 이러진 토론에서는 인천시, 인천TP, 기업, 군,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해 중소기업 활용 확대, 환경문제 해결, 국방 분야 적용, 인재 양성 등 다양한 AI 적용 및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 ① 인천시 디지털산업과 김진환 과장: 생활·산업 전반의 AI 적용 확대, 기업-시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 및 지원 사업 추진
 - ② 인천테크노파크 혁신정책팀 유광민 팀장: 중소기업과 공공부문까지 AI 활용을 확산하고, 환경 문제 해결형 AI 생태계 구축 필요
 - ③ (주)바질바이오텍 박중문 대표: 바이오 분야에 실제 적용 가능한 AI 기술 확보가 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 ④ 육군 군수사 미래군수혁신실 최선락 실장: 국방은 AI 최대 수요처로, 인천 지역 AI 기업과 협력해 무인체계·사이버 안보 혁신 추진
 - ⑤ 인하대 물류AX실증센터 박민영 센터장: 제조·물류·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수요 맞춤형 AI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

지역으로 찾아가는 AI 미래포럼(AI, 인천 미래 혁신을 그린다)

인천연구개발지원단



기대효과

이번 포럼은 인천이 AI 리더십 선도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산업·국방·시민 생활 전반에서 AI 혁신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한 자리로 평가된다.

보도자료

<https://zdnet.co.kr/view/?no=20250612190206>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5881>

2025년 인천 R&D 정책 워크숍

인천연구개발지원단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등록·내도착	09:30~10:00 (70)	참석자 등록 / 내도착	참석자
워크숍 인제	10:00~10:10 (10)	개회 / 인사말	ITP 혁신정책팀장, 인천광역시 부시장
내년 1차 R&D정책	10:15~11:40 (90)	국가 R&D 사업 이해와 예산·구조 관리 체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소희 부대표
내년 1차 R&D 기획·관리	13:30~15:00 (90)	지역 R&D 기획 및 관리 체계와 우수사례	DCREP, 김경화 부장
내년 1차 R&D 연구비 관리	15:10~16:40 (90)	지역 과학기술정책과 인천 R&D 사업	ITP, 유광민 팀장
내년 1차 R&D 연구비 관리	16:50~17:50 (60)	R&D 사업비 관리 교육	인천광역시 연구개발지원단, 신현순 팀장
폐회	17:50~18:00 (10)	내도착	참석자



인천 연구개발지원단은 '2025년 인천 R&D 정책 워크숍'을 6월 26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의 R&D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워크숍은 인천광역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TP 등 R&D 사업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책의 이해 ▲R&D 사업의 기획·관리 ▲연구비 관리 교육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박소희 로운인사이트 부대표는 과학기술정책과 국가 R&D 사업의 개념, 예산 및 거버넌스 구조를 실제 사례와 함께 공유했다.

김경화 대전과학기술산업진흥원(DISTEP) 과학협력부장은 효과적인 지역 R&D 기획·관리를 위한 추진 전략을 대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유광민 인천TP 혁신정책팀장은 인천의 산업구조와 과학기술 역량, 주요 R&D 사업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신현순 인일회계법인 회계사가 R&D 사업의 연구비 집행·관리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교육했다.

기대효과

이번 워크숍은 인천의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과 현장 실무를 긴밀히 잇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지역 과학기술·연구개발 정책과 현장 적용성이 높아지고, 실무자의 정책기획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627010008410>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4583>

충남-광주 광역과학기술혁신포럼 개최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청남도과 광주광역시 '미래차 산업 대전환을 위한 초광역 전략 포럼'을 26일 천안 신라스테이호텔에서 개최했다.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의 초광역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충남과 광주의 지역 산업 생태계 강점을 상호 결합해 글로벌 미래차 패러다임에 맞춘 지역 부품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협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기초강연에 나선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은 초광역 협력의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자율주행차 전환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및 기관 간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KAIST 조천식모빌리티대학원 이윤구 교수는 '배터리 시스템 최적화·진단·재사용 기술과 미래차 산업 연계 방안'을, 전남대학교 미래모빌리티학과 이천환 교수는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과 지역 부품산업 생태계 관점에서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충남연구원 최창규 정책기획부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주)현보 이영우 R&D본부장, 광주과학기술원 임현택 R&D혁신기획센터장, (주)호원 이상현 수석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충남과 광주지역의 미래차 산업 대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와 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보도자료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0626215208990047f28d89cf_29

제30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남연구원은 단국대학교와 공동으로 6일 보령시 한화리조트에서 '충남 산업단지 맞춤형 그린수소 기술 개발 전략'을 주제로 '제30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최창규 정책기획부장은 "이번 포럼은 충남 그린수소 기술의 실증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리인 만큼,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충남도의 변화와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발표에 나선 (주)AES Tech 전재홍 대표이사과 단국대 이창현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각각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의 중요성과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남도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기술의 동향 분석과 상용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충남연구원 최창규 부장의 진행으로 충청남도 수소에너지팀 정광수 주무관, 한국중부발전 수소사업실 임채훈 부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제품연구부 정재환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충남 산업단지 맞춤형 그린수소 기술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제로 △실증 프로젝트 추진 △인증 및 안전 기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단지 내 공급망 및 인프라 구성 △관련 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보도자료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0626215208990047f28d89cf_29

필리핀 공무원, 충북에서 드론 기반 조사료 생산관리 역량 연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KOICA ODA사업 통해 ICT 기반 농업혁신 경험 전수 -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은 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카라바오센터(PCC)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드론 활용 조사료 생산관리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필리핀 농업부 및 PCC 소속 정책결정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드론 및 인공지능(AI) 등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조사료(사료용 목초)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필리핀 낙농 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연수 내용은 ▲드론 기술 및 정책체계 이해, ▲조사료 생산관리를 위한 드론 활용, ▲드론 기반 필리핀 조사료 생산 전략, ▲현장견학(항공안전기술원, 청주대학교,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농협사료 충청지사, 한우축산농가 등) 및 실습, ▲정책 설계 및 실행계획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드론 및 AI 등 첨단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의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과 현장 실습, 정책 설계,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등 실무 중심 교육이 포함된다.

본 사업은 2025~2027년 3개년 계획으로, 1차 연도에는 정책결정자 대상 초청 연수, 2차 연도에는 실무자 대상 연수, 3차 연도에는 필리핀 현지 심화 연수로 이어질 예정이다. 연수 종료 후에도 비대면 자문, 현업 적용 모니터링, 후속 심화 교육 등 지속적 사후관리와 현지 기술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근석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농업 기술과 ICT 융합 기술이 필리핀 현지에 성공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9373>



04

R&D 성공사례

글로벌 우주항공 메카를 꿈꾸는 경남, 세계를 향한다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글로벌 우주항공 메카를 꿈꾸는 경남, 세계를 향한다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 G-RESTART, 혁신의 엔진을 다시 켜다

경남은 3대 산업지구(마산 자유무역지구, 창원국가산업단지, 거제조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970년대 제조업 르네상스를 견인하며 국가 경제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국내 제조업의 총생산액 하락, 경남 제조 기업 감소, 연구개발 투자 미약, 청년 인재 유출과 더불어 중국과 같은 국외의 신흥 제조 강국의 부상과 4차산업혁명의 확산 등 국내외 요인에 따라 경남의 제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경남도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산업생태계 확장, △ 미래 첨단산업 육성, △ 주력산업 고도화, △ 지속 가능 성장 동력확보 등 4대 전략의 제조산업 혁신 시2를 추진하고 있다. 본 「R&D 성공사례에서는 4대 전략 “미래 첨단산업 육성” 중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대한 경남도의 추진 정책·전략과 R&D 성공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제조산업 혁신 시2, 출처: 경남도>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육성 정책 선포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및 민간 우주항공산업 정책 방향에 맞춰 경남은 2024년 5월 “글로벌 우주항공산업 수도”를 비전으로 선포하였다. 10년간(’24~’33) 총 8조 3,845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 육성기반 마련 핵심기술 개발 미래신성장 생태계 조성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생산액 5배 상승, 선도기업 20개 육성, ③ 산업 고용 53,340명 창출, ④ 혁신 스타트업 30개 육성 등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다.



<경남의 비전 및 추진 전략, 출처: 경남도>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산업육성 기반마련(25개사업, 3조1,903억 원), △산업 핵심기술개발(22개사업, 1조4,694억 원), △미래 신성장 생태계조성(30개사업, 7,055억 원),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11개사업, 3조192억 원)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추진 전략(4대)	핵심 사업(12개)	사업 수	총사업비(억 원)
01 산업 육성 기반 마련	① 경남 스페이스파크 조성	9	11,267
	② 항공 혁신 인프라 조성	8	18,855
	③ 미래항공모빌리티 기반	8	1,781
소계		25	31,903
02 산업 핵심기술개발	① 우주	9	1,858
	② 항공	6	3,800.2
	③ 미래항공모빌리티	7	9,036
소계		22	14,694.2
03 미래신성장생태계조성	① 인력양성	8	4,469.8
	② 투자유치	4	1,208
	③ 기업지원	15	1,378
	④ 글로벌협력/제도지원	3	-
소계		30	7,055.8

추진 전략(4대)	핵심 사업(12개)	사업 수	총사업비(억 원)
04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① 교통·물류	6	23,614
	② 정주·문화·교육 여건	5	6,578
	소계	11	30,192
합계		88	8조 3,845억 원

우주항공산업 정책 비전 실현을 위한 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경남도는 도내 주요 지역혁신기관(29개 기관, 11개 대학)과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산업정책과 관련 사업을 상시 조사·분석하고, 관계 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와 경남연구개발지원단은 “경남 과학기술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와 경남도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사업에 대한 실무 논의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정책 총괄과 거버넌스 체계의 중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상시 운영하여 산업정책 동향을 공동 조사·공유하며, 경남 중점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성장 동력 마련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경남의 지역혁신기관 현황>



<경남 과학기술혁신협의회>

경남, 우주항공산업 관련 경남지역혁신기관의 주요 추진현황

위와 같이, 정부·경남도 정책에 대해 지역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경남테크노파크(경남연구개발지원단)를 비롯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경상국립대학교 등 지역의 혁신기관들은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재양성 등 창원·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내용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 경남 과학기술종합계획(2023~2027) → 우주항공산업 육성 방향 반영 ▶ 경남 과학기술혁신계획(2024~2027) → 중점산업: 우주시스템 ▶ 경남 항공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2024~2033) → 경남을 우주항공산업의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육성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우주, 항공,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를 선정하였고 초소형위성 개발 및 우주항공용 소재개발 등 세부과제 23개를 추진 	
	<table border="1"> <tr> <td>주요사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소형위성 개발 - '23년~'27년/50억 원/주체: 경남도, 진주시, KTL, TP ▶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 - '24년~'28년/270억 원/주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TP, 세라믹기술원 등 ▶ 전기추진 항공기체 주요 부품에 대한 표준화 - '26년~'28년/150억 원/주체: 우주항공청, 한국전기연구원, TP ▶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 - '23년~'26년/48억 원/주체: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TP 등 </td> </tr> </table>	주요사업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소형위성 개발 - '23년~'27년/50억 원/주체: 경남도, 진주시, KTL, TP ▶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 - '24년~'28년/270억 원/주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TP, 세라믹기술원 등 ▶ 전기추진 항공기체 주요 부품에 대한 표준화 - '26년~'28년/150억 원/주체: 우주항공청, 한국전기연구원, TP ▶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 - '23년~'26년/48억 원/주체: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TP 등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소재 우주항공분야기업의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과 핵심부품 기업 육성 	
	<table border="1"> <tr> <td>주요사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항공모빌리티 핵심부품기업 육성사업 - '25년~'33년/50억 원/주체: 경남도, TP ▶ 항공CT 국산화 상용기술 개발지원사업 - '18년~계속/36억 원/주체: 경남도, TP </td> </tr> </table>	주요사업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항공모빌리티 핵심부품기업 육성사업 - '25년~'33년/50억 원/주체: 경남도, TP ▶ 항공CT 국산화 상용기술 개발지원사업 - '18년~계속/36억 원/주체: 경남도, TP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대·우주항공과학기술원 설립을 통하여 지역 청년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인재 유출을 막아 전문 인력을 양성 	
	<table border="1"> <tr> <td>주요사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형 우주항공과학기술원(GADIST) 설립 - '23년~'27년/3,253억 원/주체: 경남도, 경상국립대학교, TP ▶ 우주항공대학(CAS) 설립 - '23년~'27년/529억 원/주체: 경남도, 경상국립대학교, TP </td> </tr> </table>	주요사업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형 우주항공과학기술원(GADIST) 설립 - '23년~'27년/3,253억 원/주체: 경남도, 경상국립대학교, TP ▶ 우주항공대학(CAS) 설립 - '23년~'27년/529억 원/주체: 경남도, 경상국립대학교, TP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R&D센터 유치, 우주항공클러스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생태계 조성 	
	<table border="1"> <tr> <td>주요사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산업 특화 3D프린팅 기술 통합 지원센터 건립 - '25년~'28년/480억 원/주체: 우주항공청, 경상국립대학교, TP, 경남도 ▶ 위성개발혁신센터 건립 - '24년~'26년/394억 원/주체: 우주항공청, 경남도, 사천시, TP </td> </tr> </table>	주요사업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산업 특화 3D프린팅 기술 통합 지원센터 건립 - '25년~'28년/480억 원/주체: 우주항공청, 경상국립대학교, TP, 경남도 ▶ 위성개발혁신센터 건립 - '24년~'26년/394억 원/주체: 우주항공청, 경남도, 사천시, TP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 중점산업에 대한 신규 R&D과제 발굴기획 중점 추진

경남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R&D과제 발굴 및 기획을 통한 자생적 성장동력 마련 및 과학기술 발전 견인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의 연구원·대학·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매년 신규 R&D기획 보고서를 도출하는 “경남 과학기술혁신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 과학기술혁신연구회는 201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총 101개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였으며, 144개의 과제를 발굴·기획하였다. 이 중 38개 과제가 사업으로 연계되었으며, 약 94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그 중, 우주항공산업 분야는 18건의 과제를 기획·도출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과학기술혁신연구회를 통해 기획된 과제(하이브리드 단거리 이착륙 커뮤터기 핵심기술 개발)가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듯, 경남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분야와 중점산업을 연계하여 경남의 산·학·연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규 R&D 발굴·기획, 사업 연계, 예산확보 등 선순환구조 유지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연구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도	구분	과제명
2025	1	▶국산화 소재 개발 및 적용 우주용 소재부품 실증 기반구축
	2	▶스페이스팜용 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체계 고도화 연구
	3	▶우주방산용 나노소재 상용화 생태계 조성
	4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 설계 및 성능평가시스템 개발
	5	▶우주방산용 내방사선 반도체 소재기술 개발
	6	▶미래 모빌리티(항공) MRO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
	7	▶미래 항공 모빌리티 모터 성능향상을 위한 난적층성 순수구리 적층제조 기반 차세대 코일 적용 800V급 고효율 AFPM 모터 개발
2024	8	▶저궤도 위성용 전장품 핵심요소 기술개발
	9	▶우주에서의 생산·조립·제조를 위한 궤도상서비스 로봇위성 개발 기획연구
	10	▶우주 궤도상서비스 시장 개척을 위한 재사용 우주비행체 개발 기획연구
	11	▶경남형 우주항공 핵심부품 기술개발
	12	▶항공 우주 기체 구조물 제작 기피공정 자동화를 위한 로봇기반 공정 기술 및 시스템 개발
2023	13	▶생체 가수분해 용액을 이용한 BIO-Diesel 및 항공유 개발
2022	14	▶하이브리드 단거리 이착륙 커뮤터기 핵심기술 개발
	15	▶전기추진 항공기용 파워트레인 개발 및 시험 인프라구축
2020	16	▶차세대수소발생 및 수소연료전지 차세대수전해 소재·부품·장치, 연료전지가 탑재되는 무인항공기
2018	17	▶항공규격을 활용한 표준부품 기술역량 강화와 PM의 활용에 관한 연구
2017	18	▶경남창원형 드론육성사업 기획

맺음말

경남도는 「경남 과학기술혁신계획(2024.~2028.)」과 「경남 우주항공산업 육성 종합계획(2024.~2033.)」을 토대로 우주항공 분야의 성장거점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남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경남 과학기술혁신협의회」와 연구회를 중심으로 신규 R&D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기획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경상남도와 경남연구개발지원단, 도내 지역혁신기관은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의 수도”를 향해 함께 도약할 것이다.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R&D 사업 투자 및 성과의 통계를 체계화하여 각 산·학·연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과제, 투자, 성과 등 각 지역의 R&D 분야에서 산출되는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지역 연구개발분야의 지식웨어하우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	강원도연구개발사업정보서비스	rnd.gsipa.or.kr
경기	경기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gtis.gbsa.or.kr
경남	경남연구개발조사·분석정보제공시스템	gctis.gntp.or.kr
경북	경북과학기술정보서비스	gbtis.re.kr
광주	광주과학기술정보시스템	gjtis.gjstec.or.kr
대구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dtis.re.kr
대전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	daon.distep.re.kr
부산	부산과학기술정보서비스	btis.bistep.re.kr
서울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www.stis.or.kr
세종	세종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울산	울산R&D성과물정보관리시스템	rnd.utp.or.kr
인천	인천R&D정보시스템	irds.itp.or.kr
전남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jntis.jnsp.re.kr
전북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rnd.jbtp.or.kr
제주	제주지역R&D통합관리시스템	-
충남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www.cnstis.net
충북	충청북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researchweb.cbist.or.kr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033) 650-3320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044) 850-2124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 259-6554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052) 219-0852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055) 259-3445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032) 260-0741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054) 479-2217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061) 729-2744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062) 609-0411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063) 260-9322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053) 757-4182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64) 720-2308
대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042) 865-0531	충남	충남연구원	(041) 840-1775
부산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051) 795-5035	충북	충북과학기술혁신원	(043) 210-0866
서울	서울테크노파크	(02) 944-6072			

